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 엠바고① : 재외동포청 출범식 종료 이후 보도(대외협력비서관실 별도 공지)

※ 엠바고② : 재외동포청 개청 축하행사 종료 이후 보도(대외협력비서관실 별도 공지)

윤석열 대통령, 국민과의 약속 재외동포청 출범 축하

- “전 세계 어디에 계시든 우리 동포의 아픔을 보듬는 것이 국가의 책무”
- “한국인 원폭피해자 동포분들 피폭당한 지 78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 분들의 고통과 슬픔을 겪는 현장을 고국이 함께 하지 못 해”
- “조만간 원폭 피해 동포를 초청해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릴 것”
- “재외동포의 네트워크 허브, 인천이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는데 동력이 될 것”

※ 엠바고① : 재외동포청 출범식 종료 이후 보도(대외협력비서관실 별도 공지)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6/5, 월) 오전 인천 송도 재외동포청 청사(부영 송도타워)에서 개최된 재외동포청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출범식은 지난 3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재외동포청 출범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앞으로 재외동포청이 자랑스러운 750만 재외동포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드렸

다” 며,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고 밝히고, “인천은 120년 전 하와이로 향하는 이민선이 출발했던 재외동포의 뿌리” 라며, “인천이 재외동포청 유치를 계기로 더욱 활기찬 국제도시로 도약할 것” 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 “재외동포 여러분들은 모국과 동포사회가 함께 성장할 기회의 창구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 고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은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은 재외동포 전담기구” 라며, “앞으로 재외동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수행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외에 자리 잡으신 동포 여러분은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외 네트워크” 라며, “750만 한인 네트워크가 서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게 되면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것” 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달 일본에서 한국인 원폭피해자 동포분들을 만난 것을 언급하며, “전 세계 어디에 계시든 우리 동포의 아픔을 보듬는 것이 국가의 책무”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폭당한 지 78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분들이 고통과 슬픔을 겪는 현장을 고국이 함께 하지 못했다” 며, “조만간 원폭 피해 동포를 초청해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고자 한다” 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차세대 재외동포들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주고 모국과의 인연을 이어가는 것은 재외동포청이 수행해야 할 필수적인 임무” 라고

말하고, “2세, 3세 동포들에게도 모국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며, “한국인의 자부심을 갖고 정체성을 계승할 수 있도록 우수한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한국을 방문하여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 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출범식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정관계 주요 인사,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에 소재한 동포 단체 인사를 포함해 약 1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프라미스’ 작전을 통해 귀국한 수단 한글학교 교사, 고려인과 사할린동포 등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또한, 아시아, 북미,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중동, 오세아니아 등 전 세계 각지의 600여명의 재외동포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참석해 재외동포청 출범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각 국별 한인회장을 포함해 거주국 주류사회에 진출한 전문직 종사자,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 세계 각지의 동포들이 참석해 한마음으로 재외동포청 출범을 환영하고 앞으로의 역할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출범식에서 대통령은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재외동포청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그간 동포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온 87명의 재외동포 유공자 중에서 4명에게 직접 훈장과 표창장을 수여하고 격려했습니다.

오늘 출범한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정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재외동포에게 차세대 동포 한국어 교육, 동포사회 네트워크 구축, 모국 방문 기회 확대 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과 재외동포

사회를 촘촘히 연결하고, 함께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 대표 수상자(4명)

- 송창근(무궁화장, 인도네시아, 재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 회장)
 - 성공한 한인 기업인(인니의 미스터 신발왕), 우리 진출기업 지원
- 이옥화(동백장, 미국(시애틀), 前아세안태평양자문위원회 커미셔너)
 - 워싱턴주 최초 한인공무원으로 30년 재직하며 한인 권익보호에 기여
- 구상수(석류장, 인도, 재인도한인회고문)
 - 한글학교 2개교 설립에 기여, 우리 진출기업 지원 위한 봉사단체 조직
- 김희경(대통령표창, 필리핀, 필리핀 한국여성연합회 이사)
 - 손해보험전문인으로 사고 당한 한인 지원, 봉사활동 통해 한국 이미지 제고 기여

※ 엠바고② : 재외동포청 개청 축하행사 종료 이후 보도(대외협력비서관실 별도 공지)

대통령은 출범식에 이어 송도 센트럴파크 UN공원에서 개최된 재외동포청 개청 축하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축하행사에는 정관계 주요인사, 유럽한인총연합회장, 미주한인총연합회회장 등 주요 한인단체 그리고 재외동포청 유치에 함께 힘을 모은 재외동포와 인천시민 등 700여명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인천은 세계 최고의 국제공항과 글로벌 기업, 15개의 국제기구와 글로벌 교육기관을 품고 있는 도시”라며, “재외동포의 네트워크 허브가 될 재외동포청은 인천이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는데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세계 750만 동포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재외동포청

을 인천에 둔다는 것은 인천이 곧 글로벌 비즈니스의 허브가 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은 “인천은 1950년 공산 침략으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상태에 놓였을 때 전황을 일거에 반전시킨 상륙작전이 전개된 곳” 이라며, “인천이 자유와 혁신의 정신으로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것은 어찌보면 역사적 필연”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직접 대북을 두드려 재외동포청 개청을 널리 알리고 재외동포청의 발전과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끝>